

종합·해설



10일 오후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출판기념회에서 참석한 여야대표들이 기념 영상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족 내일 밝혀줄 희망 지침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 출판기념회 성황

이희호 여사·여야 지도부 등 1000여명 참석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8월18일)를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10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김대중평화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 김홍일·김홍업 전 의원 등 가족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했다. 또 서평은 박승 전 한은총재와 국민의 정부 초대 중앙 인사위원회인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희호 여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책을 읽는 동안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권력에 굽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낸 남편이 존경스러웠다”며 “이 책은 남편의 자서전이자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감을 꾀하였다.

이 여사는 또 “남편은 깊은 신앙심과 민주주의·자유·평화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노갑 전 고문은 축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우리 시대의 어르신이었다”며 “일평생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뜻을 함께해 온 정치적 동지들과 김 전 대통령의 식견과 열정을 믿어온 지지자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전 고문은 또 “이 책은 민주주의 교과서이자 민족의 내일을 밝혀줄 희망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을 남겨준 김 전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사 말미에는 평화방송 어린이 학창단이 김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나의 살던 고향’ ‘사랑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춤가를 불러 추모 분위기 고조시켰다.

한편, 김 전 대통령 측은 10~18일을 추모기간으로 정해 각종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모기간에 김대중도서관 로비에 분향소를 운영하고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집무실로 사용됐던 도서관 5층도 개방한다.

이 여사는 또 “남편은 깊은 신앙심과 민주주의·자유·평화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길 바란다”고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검증특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4대강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강하게 내걸고 가자”면서 “당 차원에서 ‘4대강 국민투표위원회’와 서명운동본부를 만들어 압박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단체장들의 입장은 꼭 과거였다”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문을 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당 소속 단체장들의